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6

‘몸·마음’ 평온하게 비워라

[원문]

청련좌상월여생(靑蓮座上月如生) 삼천계주석가존(三千界主釋迦尊) 자감궁중성약렬(紫紺宮中星若列) 십육대아라한중(十六大阿羅漢衆) -서울 수도산 봉은사 영산전

[번역]

푸른 연좌 위에 달처럼 앉으신 분은 삼천계의 주인이신 석가세존일세 자감궁 한가운데 별들이 벌려선 듯 열여섯 큰 제자들이 모여 있구나.

[선해(禪解)]

달하면 불가(佛家)에서는 마음에 많이 비유한다. 그런데 달을 호떡에 비유하신 분이 있다. 그가 바로 운문 선사이다. 어느 날 운문 스님은 상당법문을 마치면서 대중에게 부처와 조사의 의지를 극복하고 한마디 일러 보라고 다그쳤다. 이 때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 넘는 이야기입니까? (如何是超佛越祖之談)"

"호떡이나라 (胡餅)."

이는 <벽암록(碧巖錄)>100칙 중 77번째 칙인 '운문의 호떡'이라는 화두이다.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6) 스님은 중국 당나라 때 17세에 출가하여 교학을 공부하시다가 자신의 본분사(本分事)를 밝히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선문(禪門)의 길에 접어드신 분이시다. 그는 목주 스님을 장방하여 안목(眼目)이 열린 후, 당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8) 스님 문하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광동성 운문산에서 광태선원을 열고 선풍을 드날리며 선종 오가 중 하나인 운문종을 개창한 대선지식이다. 운문 스님이 남자들을 제접 하고 남긴 법거랑은 오늘 날에도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중국선종의 실질적 개종조라 할 수 있는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법을 퍼신 것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화두는 운문 스님이 후학들과 나눈 문답과 같이 선가의 종장(宗匠)들이 제자들에게 불법의 정수를 가르치며 한 법문 말미에 나오는 질문이다. 당시 유행(遊行)하며 제방의 선지식들을 찾아 법을 묻는 선객(禪客)들의 기백이나 때론 간절한 물음에 대해 조사스님들이 제시한 답이나 행동을 주로 말한다. 또한 조사어록에는 당대 일가(一家)를 이룬 눈 맑은 스승들의 계승, 그들 사이에 오고간 율과 호랑이가 여의주를 다루고 진귀의 불꽃이 튀는 살활자재(殺活自在)하며 활발발(活潑潑)한 법거랑과 문답

그리고 계승에 대한 평창(平唱)들이 더해져 있다. 화두는 흔히 공안(公案)이라고도 한다. 관정의 문서처럼 공의(公議)에 의해 결정된 안건이며 판결인 만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여 깨달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아무튼, 이 화두는 '참선수행자에게 부처님의 안목을 열리게 하는 문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내려오는 공안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들어보면 조주(趙州) 선사의 '무자(無字)'와 '뜰 앞의 잣나무'가 있으며 남전(南泉) 선사의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 동산(洞山) 스님의 '삼서근(麻三斤)' 등이 있다.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스님께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 막대기(乾屎橛)이나라."

간시괘(乾屎橛), 마른 똥 막대기란, 옛날에는 휴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변 본 뒤에 뒤처리하는 막대기를 말한다. '무엇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대답을 운문 스님께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운문 스님의 '달은 호떡이며 부처는 똥 막대기'라는 대답은 보통의 대

방자호란 때 불탄 것을 속종 때 증건하고 1825년(순조 25)에 다시 중수하였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대부분의 전각들이 파괴되었으며 이후에 재건하였다.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법왕루(法王樓)·북극보전(北極寶殿)·선불당(禪佛堂)·천왕문(天王門)·일주문(一柱門) 등의 당우(堂宇)가 있으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쓴 현판, 철종 때 승려 영기(永奇)가 조각한 <화엄경(華嚴經)>(81권) <금강경(金剛經)> <유마경(維摩經)> 등 불경판(佛經板) 13종, 3,479장이 보존되어 있다. 이 밖에 보물 제321호로 지정된 고려청동무은항로(高麗靑銅鍮銀香爐)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그림 영산전 주련의 내용 속을 둘러다 보자.

‘청련좌상월여생(靑蓮座上月如生) 삼천계주석가존(三千界主釋迦尊): 푸른 연좌위에 달처럼 앉으신 삼천계의 주인이신 석가세존일세.’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대지라는 푸른 연좌 위에 항상 달처럼 앉아 계시면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연호는 석가모니·석가문·능인적목·석존·부처·붓다·여래·세존 등 셀 수 없이 많지만 어쩌면 저 하늘에 뜬 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부처님은 해와 달 바람으로 화현하신다. 삼천계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준말. 고대 인도인이 생각한 천 우주를 가리키는데 이른바 이를 일불국토(一佛國土)라 하기도 한다

‘자감궁중성약렬(紫紺宮中星若列) 십육대아라한중(十六大阿羅漢衆): 자감궁 한가운데 별들이 벌려선 듯 열여섯 큰 제자들이 모여 있구나.’

자감궁은 삼천계에 있는 부처님이 거처하는 곳으로서 16아라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가장 가까운 열 여섯 명의 나한을 말한다. 빈진 두로파라타 존자, 갈낙가박차 존자, 가낙가바리타 사 존자 등인데 이 제자들이 별빛처럼 부처님을 호위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아라한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어 열반 또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을 일컫는다.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다시는 생(生)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봉은사 영산전의 주련은 삼천계의 주인이신 부처님이 항상 위대한 열 여섯 명의 아라한들의 보좌를 받으며 해와 달과 비추이며 항상 우리 중생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내용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

마음을 관함이 수행의 요체

[원문]

惠可問曰 若有人 志求佛道 當修何法 最爲省要. 師答曰 唯觀心一法 摠攝諸行 名爲省要. 問曰 云何一法 摠攝諸行. 師答曰 心者萬法之根本也 一切諸法 唯心所生 若能了心 萬行俱備 猶如大樹 所有枝條 及諸花葉 皆悉因根 栽樹者 存根而始生 伐樹者 去根而必死 若了心修道則 省功而易成 若不了心而修道 乃費功而無益 故知一切善惡 皆由自心 心外別求 終無是處.

해가 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도를 얻고자 한다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긴요하니까?" 이에 달마 대사께서는 "마음을 관(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념적 사고로 사려, 분별하지 않고 곧바로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나라."하신 후 다시 말씀하셨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법(만유일체, 모든 법, 모든 존재)의 근본이나라. 일체의 법이 오직 마음에서 생기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수행을 다 갖춘 것이 되느니라. 비유하자면 큰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가 모두 뿌리로 인하여 오직 나무를 키우려는 사람은 뿌리를 두어야 살릴 수 있고 나무를 베어버리려는 사람은 뿌리를 없애어야 반드시 죽일 수 있듯이 마음을 깨닫고 도를 닦으면 공을 적게 들 여도 쉽게 이를 것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헛수고만 할 뿐 이익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알아라. 일체의 선과 악은 모두 자기의 마음으로 생겨나니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는 것은 결국 옳지 못한 것이니라."

[해설]

달마 대사께서는 수행법을 묻는 제자 해가의 물음에 "마음을 관(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념적 사고로 사려, 분별하지 않고 곧바로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관하는 그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우주의 근본실상 즉,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라 설하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법(만유일체, 모든 존재)의 근본이나라.'

모든 법의 근본이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쓰는 마음이 아니고 우주 근본실상, 즉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모양이 아닌 진여당체(眞如當體)에서 나온 겁니다.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주의 근본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마음에서 지어진다든 겁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며 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을 사실인 줄 착각하며 살지만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보면 모양이 없는 것에서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계도 사실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중생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법이 오직 마음에서 생긴다는 도리를 알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나무의 꽃과 열매가 뿌리에서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모양이 없는



범주 스님 작, 달마도.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뿌리에 영양 공급을 잘 해주어야 하듯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잘 썬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어야 되겠지요? 복을 지을 생각도 없이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진리를 배반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쓴다면 악한 일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유롭게 산다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이고 만약 금생에 복을 짓지 않았다면 다음 생에 박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뿌리를 없애면 나무가 죽듯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만 제거하면 욕심이 없어지니까 바로 모든 번민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깨닫고 도를 닦으면 공을 적게 들 여도 쉽게 이를 것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헛수고만 할 뿐 이익이 없으리라.'

우주 근본실상이 하나인 도리를 알고 정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실상의 도리를 알고 정진한다면, 단 싹뿐이라 할지라도 우주를 상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발심한 그 마음이 깨달음이다"(初發心時便正覺)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깨닫고 수행을 하면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은 우주를 하나로 보고 행한다면 그 공덕도 새지 않는 무무(無漏)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도리를 모르고 대상만 보고 수행한다면 깨달음도 이룰 수 없지만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겁니다.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니, 먼저 마음의 도리를 깨닫고 행(行)해야 됩니다. 염불을 할 때도 염불하는 그 마음이 우주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범주 혜은사 주지

(등록번호 206-82-65359)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 대표회장 회암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현산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수 (대한불교사암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혜성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 이사 윤호 (대한불교인왕종 총무원장), 운공 (대한불교홍제종 총무원장), 해일 (대한불교미륵선종 총무원장), 법열 (세계불교대각총연합), 탄공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청원 (대한불교불광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성우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동선 (대한불교법왕종 총무원장), 향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법장 (대한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달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회법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청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무도 (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범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정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법우 (조계종정토불교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상일 (불교임계종 총무원장), 화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감사 고산 (한국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성수 (한국종교예술방송 대표)

종단고문변호사 김진태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산 2-13 종단진흥총연합회
전화 02)3436-0797 / 팩스 02)2201-1163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해도사

주지 정비룡

남양성인사 태하삼도사

신도회장 도영국 외 신도회장 김도근 외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